굿모닝인천
MAY 2021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29
05
4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인천나비공원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21. 05 | MAY

흑인녀

배인철(裵仁哲 : 1920-1947)

그렇다
네 아름다운 고향 산과 들
한번 백인의 노예선을 찾아간 다음 –
이제는 정다이 흐르는 나일강 저녁이 오면
바람 속에 노래 부르는
아아 자연 그대로의 樹木 같은 아가씨

–앞부분

동두천, 1983년 ©사진 강용석

글 김영승

고작 다섯 편을 남긴 시인을 놓고 글을 쓰라니, 아니 쓰자니, 알고 있는 흑인들 이름 다섯을 떠올리는 것만큼 어렵다. 다섯 셀 동안. 해방 후 그는 소위 ‘흑인시’만을 쓴 시인이다.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캐시어스 클레이(무하마드 알리), 제임스 코온(<예수와 흑인혁명>의 저자), 마이클 잭슨(58년 개띠. 나하고 동갑). 그런데 흑인 여성 이름은 왜 하나도 안 떠오르지?
일제시대 일본유학 갔다 온 지식인들이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찬양한 시는 별로 못(안) 봤고, 그들은 그럴 마음도 없었던 것도 같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동서양 할 것 없이 사실은 ‘도시적 개인주의’라는 점이다. 가령 정지용(鄭芝溶 ; 1902-1950)의 <향수>도 배경은 농촌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시의 관점은 철저히 도시적이며, 백석(白石 ; 1912-1996)의 대부분의 시들도 그렇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와서 세네갈 초대 대통령이 된 생고르(Léopold Sédar Senghor ; 1906-2001)의 대표시 그 <검은 여인>의 관점 역시 그런데, 배인철과 다른 점은 동족인 자신이 백인의 관점으로 그들을 대상화 객관화 타자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배인철은 역사의식과 시대정신과 함께 약소민족인 조선인들과 그 흑인을 동일시하려 했었으나 그들에 대한 우월감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우월감은 두 식민지 지식인 일반의 공통점인 우월감이라는 것은 그들 흑인들도 다 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여하튼 그 모든 흑인은 흑인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다.
많은 흑인 여성들의 이름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05

MAY
2021
Vol. 329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1년 5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임학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 가기 | 5월의 시민 목소리 이은영·김혜원·성시복 독자님

CONTENTS

인천 미소 04
제로 웨이스트 인천 外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05
배다리 헌책방 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06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스케치에 비친 인천 10
⑤ 월미도

자원순환 16
가전·가구 재사용

자원순환 Q&A 20
⑤ 인천에코랜드 VS 수도권 매립지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22
⑫ 인천하늘고등학교

그간 잘 지내셨나요? 26
③ 가수 송창식

건강한 인천 30
생활체육

정책 만화 32
확 달라지는 버스정류소

문화 캘린더 34
인천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Movie+ing’ 外

문화 줌인 ① 36
인천 영화

문화 줌인 ② 38
작품 40점 기증한 고정수 조각가

이미지 뉴스 42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시정 뉴스 44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좋아졌네’ 外

의회 뉴스 48
인천시의회, 정책 소통의 장(場) 마련 外

컬러링 인천 50
월미산

인포 박스 52
그 시절, 동인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外

인천 문화재 이야기 55
⑤ 홍예문

소소한 인천사 56
열우물 外

仁生 사진관 57
다섯 배의 행복

인천의 아침 58
5·3항쟁 35주년, 인천의 봄

포토 에세이 59
유채꽃이 필 때면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제로 웨이스트 인천

최근 전 세계적 화두는 환경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반갑습니다. 지난 호에 소개된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제로 웨이스트 숍 이용하기 등의 정보가 유익했습니다. 시 주도의 수소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시 전체 제로 웨이스트 숍 지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경** 부평구 원적로

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책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지금껏 인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나 봅니다. 매월 <굿모닝인천>을 통해 자주 접하지 못했던 인천의 정취를 느끼고, 다양한 정책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접점의 다양한 소식들을 알차게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굿모닝인천>은 인천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 **김태연** 연수구 랜드마크로

격려와 칭찬으로 만드는 밝은 세상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 칭찬이 아닐까 합니다. 웃는 얼굴, 상냥한 목소리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 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 노력이 인천시 전체를 보다 밝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윤성근** 미추홀구 인주대로

역사 속 보물찾기

인천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 인천을 무대로 삼고, 인천의 이름을 빛낸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인물,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숨은 인물을 발굴해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고려와 조선, 한말, 광복 이전 등 시대별로 구분해 시리즈 형식으로 구성한다면 흥미로운 기사가 될 것입니다.

— **이진환** 강화군 선원면

배다리 헌책방 거리

거리거리, 추억과 낭만 가득

글 **류서현**(인화여자중학교 2학년)

우리 동네에서는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높은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도 아닌 우리 동네를 가끔씩 TV에 비춰주는 곳은 바로 '배다리 헌책방 거리'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는 따뜻하면서 여유로운 곳으로,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답답한 도시 속 자그마한 휴식처 같은 공간이다. 도심 속 휴식처답게 헌책방 골목에 있는 고양이들마저도 여유롭게 햇빛을 즐기며 한적하게 시간을 보낸다.

낮고 아담한 건물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한산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헌책방들이 나온다. 헌책방에 들어가면 풍기는 오래된 책들의 냄새는 언제 맡아도 정겹고 기분 좋다. 또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꽂이를 살펴보며 여유롭게 책을 구경하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진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책을 쉽게 살 수 있는데, 간혹 인터넷에 없는 책들을 배다리 헌책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는 헌책방만 있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카페도 많다. 지나갈 때마다 향긋한 커피 향이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저녁에 가면 카페 전구들과 거리에 놓여 있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헌책방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곳이다. 가만히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 나와 같은 기분을 느껴보면 좋겠다.

취재 영상 보기

함께 육아 첫걸음, ‘육아천사단’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와 돌봄 영역은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 자녀를 양육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 및 가사 분담’이 꼽혔다. 여성들이 집안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남성의 4배를 넘는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현저히 낮아 저출산 시대의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우리 시는 올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계획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남성의 돌봄권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이하 육아천사단)이다.

육아천사단은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을 선정해 육아를 즐겁게 하기 위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네트워크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100인의 아빠단’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면서 인천시는 2019년부터 육아천사단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육아천사단은 인천에 거주하는 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둔 남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조 모임과 부모 학교, 애착 증진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육아천사단’ 덕분에 ‘육아 달인’ 아빠 됐습니다

지난해 인천 합계 출산율은 0.83명. 전국 평균 0.84명보다 낮고,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청년 세대의 불안과 육아 부담, 돌봄 공백, 일과 생활의 불균형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육아’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가 중요해지는 요즘, 인천시의 아빠들이 뭉쳤다.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지난해,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의 행사는 코로나19로 대부분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시간 댓글은 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열정을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초보 아빠’가 ‘육아 달인’으로

송도에 거주하는 김현수(40) 씨는 일곱 살 예쁜 딸과 올겨울에 태어날 둘째를 둔 맞벌이 아빠다. 김 씨는 주말마다 아이와 집에서 만들기를 하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다. 동네에선 자타가 인정하는 ‘육아 달인’ 아빠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아이와 제대로 놀아줄 줄 모르는 초보 아빠였다.

“제 취미가 축구 심판이었습니다. 자격증 따고 주말마다 축구 심판을 보러 외출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주말마다 나가려면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가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하나 고민하면서 ‘아빠 육아’와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인천시의 육아천사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작정 신청을 하고 2019년부터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육아천사단 활동을 시작한 김 씨는 아이와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한 끝에 2019년과 2020년 우수활동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럽은 아빠가 엄마보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횟수가 훨씬 많아요. 육아휴직하는 아빠도 흔한 일이고요.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아천사단에서는 육아에 대해 고민하는 아빠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천사단은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곳이죠.”

육아천사단을 통해 아이를 잘 이해하고,
더 친밀해졌다는 김현수 씨와 딸 아린이

육아 고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의 불균형과 엄마에게만 지워진 육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육아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송재영(48) 씨는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다.

“육아천사단은 카페를 통해 매주 새로운 미션이 공지돼요. 아이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교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어려워하는 초보 아빠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그는 육아천사단을 통해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이를 공유하면서 부부의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족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한다.

“‘100인의 아빠단’에서 시작한 모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인천시입니다. 올해 육아천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빠가 무려 1,215명이나 되니까요. 아빠들이 주체가 된 자조 모임도 생겨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열정적인 아빠들이 많아 올해는 좀 더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거라 기대합니다. 아이와 조금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육아천사단 활동을 시작하길 적극 추천합니다.”

송재영 씨 가족은 지난해 ‘전국 100인의 아빠단 방구석 노래자랑’에서 금상을 수상할 만큼 가족 모두 흥과 끼가 넘쳐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1조9,000억원 투입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목표로 내세운 우리 시는 올해 147개 사업에 1조9,873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정책 범위가 ‘출산 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대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 육아활동 지원 등을 중점 보완했다. 취·창업 재직 청년에게는 월세를 월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난해 380호에서 1,764호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올해 최초로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지정,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및 기능 보강비를 지원한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국공립·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을 660곳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24개소로 늘려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이외에도 인천형 공동 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36곳으로 늘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월미도 대관람차 53x45.5cm Oil on canvas 2021
오월 찬란한 햇살 아래 월미도.
멀리서 대관람차를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설렌다.

지금, 아름다운 날들

‘인천, 그림이 되다.’ 낡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이번 호는 최수동 화백이 그린, 추억 너머 오늘 아름다운 날들로 빛나는 월미도다.

취재 영상 보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우리들의 바닷가 놀이터

— 아, 이름도 정겨운 월미도月尾島. 1990년대 초 햇살 좋은 이맘때면, 엄마 아빠 손잡고 나들이 온 아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하늘에 걸린 대관람차는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다. 기구를 타고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르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바이킹에 겁 없이 올라탔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전설의 놀이기구 ‘타가다 디스코’는 그때도 빙글빙글 잘도 돌아갔다. 그 위에서 수건돌리기를 하고 텀블링도 하며 놀았다. 옆 무대에선 언니 오빠들이 디스코 음악에 맞춰 손가락 찌르기를 했다. ‘까르르’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와 즐거운 비명소리. 바닷가 놀이터에선 어른도 아이도 모두 신이 났다.

“인천 하면 월미도였죠. 사람들로 터져 나갈 듯했어요. 주말이면 하인천역까지 차가 길게 줄을 섰습니다.” 월미도 테마파크 유병수(61) 이사는 월미도 테마파크 ‘마이랜드’가 문을 연 1992년 그 이듬해에 입사했다. 그 후로 30년을 서쪽 바닷가에 머물렀다. 소싯적엔 도시에 있는 음악다방에서 디제이(DJ)를 했다. 아르바이트하던 학생들이 그의 손을 거쳐 이 일대를 주름잡는 디스코 디제이가 됐다. 까마득한 후배들은 군대 갔다 와서 가정을 이루고, 어느덧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30년 월미도 테마파크를 지킨, 원조 디스코 디제이 유병수 이사

빠르게 흐르는, 그들의 오월

— 춤을 맘껏 추고 싶어서, 열일곱 소년은 처음 디스코 원판 위에 올랐다. 안전요원이던 그를 눈여겨본 사장이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라’고 했다. 처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었지만, 가슴 설레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흥분됐지만, 긴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장비로 꽉 찬 운전실, 6m²가 채 되지 않는 비좁은 유리방은 그 삶의 중심이 됐다.

그리운 유년 시절 속
영원한 '월미도 오빠' 문상민 씨

문상민(36)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디제이다. 한창때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눈을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던 아이들은 세월이 흘러 아들딸 낳아 기르는 나이가 됐다. 하지만 어른이 된 그때의 아이들에게 그는, 언제나 그리운 유년 시절 속 '월미도 오빠'다.

세상에 쉬운 밥벌이가 어디 있으랴. 조명을 밝히고, 음악을 틀고, 놀이기구를 움직이고,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야 하는 게 그의 '일'이다. 언젠간 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그래도 꾹 참고 기어이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삼키며 우스갯소리를 해야만 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하늘 같은 존재였다. 며칠을 버티고 버티다 아무도 없는 운전실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울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야 했어요."

남을 웃긴다고 해서 그 삶이 희극적이진 않다. 90도 가파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하는 좁은 운전실, 지문의 때가 스미고 스며 반질반질해진 오래된 기계가 그의 지난 시간을 말해준다. "가끔 달력에 새겨진 '빨간 날' 쉬고 싶다, 손님으로 오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 일이 좋아요."
30년 놀이공원을 지켜온 유 이사도 정작 가족과 함께 놀이기구 한번 탄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우리는 더 바쁘게 일해야 하잖아요. 가족에게 항상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 키보다 훌쩍 커버린 세 아들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땀 흘려온, 누군가의 유년 시절 한 자락을 행복하게 했을, 그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바다 너머, 섬의 기억

섬은 아름다운 저 바다 너머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일본은 월미도에 조탕潮湯과 수영장을 만들었다. 밀물 때면 일본식 요정 용궁각龍宮閣이 신기루처럼 홀연히 떠올랐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1950년 9월 10일. 인천상륙작전의 전초 기지로 월미도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져 내렸다. 울창했던 숲과 바닷가, 아름답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 후로도 섬은 오랫동안 열강의 차지였다. 반세기 동안 군사 통제 구역으로 묶여 있던 월미산은 2001년이 돼서야 제 품을 열었다.

굴곡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바다는, 오늘 평화롭다. 열강의 군함이 지나던 물길 위로 유람선이 유유히 떠다닌다. 2004년 여름, 관광유람선 '코스모스호'가 닻을 올렸다. 배 안에서 식사를 하고 쇼도 즐기는 별천지라고 소문이 났다. "월미도의 명물이었죠. 서울, 경기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각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사람들을 선착장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좋은 날은 길지 않았다. 세상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나면서 유람선엔 빈 좌석이 늘어갔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놓이면서 손님이 반짝 늘었지만 몇 년 가지 못했다. 그러다 불현듯 나타난 바이러스가 뱃길을 끊어놓았다.
코스모스호를 시작으로 비너스호, 뉴 코스모스호에 이르기까지, 김창호(55) 월미해양관광 이사는 20여 년 배를 움직여왔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 승객의 절반을 차지하던 단체 관광객이 전멸했다. 외국에서 온 공연단도 무대 한번 오르지 못하고 제 나라로 떠났다. 가슴 아팠다. 모두 힘드니 참고 견디자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승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사랑과 낭만이 함께하는 유람선 뉴 코스모스호. '바다의 궁전'이라 불릴 만큼 안락합니다.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날, 다음 날 잡혀 있던 유람선의 항해가 취소됐다. 텅 빈 선착장, 굳게 닫힌 매표소엔 정적이 흐른다. 새우과자를 먹으려고 배를 쫓던 갈매기들이 갈 곳을 잃고 선착장 위를 선회한다. 하늘빛이 달라지고 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월미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 신이 나는, 우리들의 바닷가 놀이터

월미도 유람선 53x45.5cm Oil on canvas 2021
굴곡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바다는, 오늘 평화롭다.

'뉴 코스모스호' 앞에서.
김창호 월미해양관광 이사

석양의 월미도 I 53x45.5cm Oil on canvas 2019
노을 내리는 월미도 하늘.
추억을 넘어 일상으로, 월미바다열차가 달린다.

Since 1991. 저마다의 사연이 머물다 간 '미투커피'.
커피숍 루프탑에서 정승욱 대표(아래)

바닷가 빛나는 '화양연화'

월미도에선 누구나 추억에 잠긴다. 생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던 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 설렌다.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30여 년 전, 한 남자가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자 월미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집을 지었다. 벽돌 한 장 한 장 정성으로 쌓아올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완성된 집을 끝내 보지 못하셨다. Since 1991 '미투커피'. 주인 잃은 집엔 커피 향이 가득 차올랐다. 10년 전부턴 사위 정승욱(47) 씨가 공간을 보듬고 있다.

"휴게음식업 '북성 4호'라고 면허에 쓰여 있어요. 이 일대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가게라는 의미죠. 우리 가족의 역사,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이 흐르는 공간이잖아요. 백년가게로 오래도록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장인은 오늘도 어머니를 위해 지은 이곳에 와서 바다를 바라본다. 화평동에서 냉면집을 하는 한 단골손님은 친구들이 오면 꼭 월미도 이 집을 찾는다. 주말이면 와서 한참을 쉬다 가는 삼대 가족도 있다. 저마다의 사연이 머물다 간 자리엔 웃음이 묻어나고 눈물이 배어난다.

1989년 10월 15일, 제25회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생겨났다. 오밀조밀 길거리 점포들 사이 어깨를 부대끼며 다니던 그 거리엔 누군가의 삶이 흐른다.

장관훈(50) (사)월미도번영회 회장은 고등학생 때 처음 월미도로 와 구멍가게에서 일을 배웠다. 어린 나이에 장사에 눈떴다. 군대에 갔다 와서 좌판에서 테이프며 장난감을 팔았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일하고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10년 정도 길에서 버티다 작은 가게를 마련했다. 지금은 어엿한 3층짜리 조개구이집 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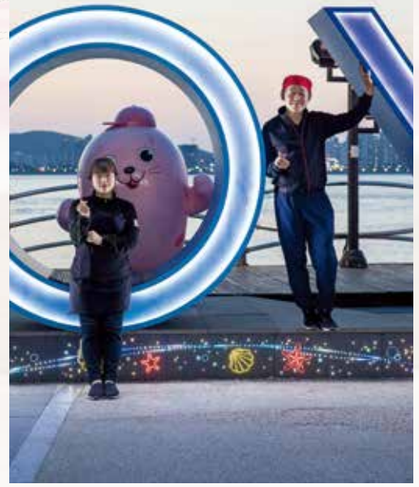
"나 혼자 젊을 때는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커 가는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을 갚아가며 어렵게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다. 하지만 스물하나 스물셋, 잘 자라준 딸들을 떠올리면 살아온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기억해요. 선착장 앞의 주황색 구루마. 친구들이 '아빠 거냐'고 물으면, '맞아. 이걸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맛있는 것 사주셔'라고 말했지요." 첫째 장민(23) 씨는 아버지가 묵묵히 삶을 더 나은 길로 열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금도 그때처럼 그런 아버지가 고맙고 자랑스럽다.

수많은 삶이 스쳐 지나는 이 자리는 누군가에겐 집이다. "난 월미도가 고향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앞마당에 바다가 있었지요. 아빠와 동생만 있다면, 난 언제까지라도 여기 살 거예요."

월미도, 많은 사람이 인천 하면 아직 이 동네를 먼저 떠올린다. 여전히 놀 줄 아는 청춘들이 이 거리로 모여든다. 놀이공원은 오늘도 시끌벅적하다. 추억을 넘어 일상으로, 월미바다열차가 달린다.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이랜드 032-765-2490 **월미도해양관광** 032-765-1171
미투커피 0507-1328-7131 **달쭈꾸미** 0507-1311-7403
유령치즈조개&활어회 0507-1384-4040, 032-772-4040



서로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와 딸.
장관훈 (사)월미도번영회 회장과 첫째 장민 씨

그림 최수동
인천원로작가회 회원으로, 60여 년 세월을 그림과 함께했다. 서양화 전공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12회에 걸친 개인전을 연 노장이다. 70여 회에 이르는 그룹전과 교류전에 참여하며 작품 무대를 넓혔다. 인천교구 가톨릭미술가회 회원이기도 한 그는 1,600여 장에 달하는 성화를 그린 화가로도 유명하다. 성경 필사 노트에 빼곡하게 그려진 작품을 다시 유화로 완성하는 작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가전·가구’, 절반 값에 구입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고 상거래가 점차 늘고 있다. 내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한 제품을 중고 장터를 통해 저가로 판매하거나 기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아직 가전이나 가구처럼 부피가 크고 가격이 나가는 제품은 선뜻 중고 제품으로 구매하기 꺼려진다. 이럴 땐 재활용 전문 매장을 찾아보자. 새것 같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그야말로 ‘득템’할 수 있으니 말이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중고 전문매장에서는 매입한 세탁기를 모두 분해해서 고압세척기로 청소한 다음 다시 조립해 판매한다.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깔끔하게 세척·살균하는 것이다.

환경 위한 첫걸음 가전·가구 ‘재사용’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텀블러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운동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환경 문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려지던 제품이나 물건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을 위해서는 물건을 아껴 쓰고 오래 써야 하며, 필요한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고 거래 온라인 사이트도 좋지만, 개인이나 기업들로부터 중고품을 기부받아 판매하는 중고품 매장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전·가구 같은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중고 전문 매장이 주목받고 있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환경 문제를 돌아볼 수 있어 현명한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똑똑한 소비
중고 상품에 대한 편견 버리기

“처음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했어요. 중고 물품이라는데 품질이 거의 새 제품과 똑같더라고요. 유명 브랜드의 리퍼브 제품도 있어서 여길 계속 오게 되네요.” 서구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지은(43) 씨는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중고 전문 매장 ‘해피트리 리사이클’을 자주 찾는다.

옷장, 소파와 같은 가구와 TV,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 모두가 남의 손을 거친 중고품이지만 품질만큼은 새 제품 못지않다.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물품을 전문가의 수리·수선과 세척·소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해도 됩니다. 또 구입한 제품은 AS를 받을 수 있어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중고 물품 사업을 진행해 온 이종인(60) 해피트리 리사이클 대표는 스스로를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중간 도우미’라고 소개한다. “이곳에서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다 필요 없어지면 재매입도 해드리니 필요한 물건이라면 부담 없이 샀으면 합니다.” 이 대표는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전·가구의 재활용도 결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중고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해피트리 리사이클
주소 : 인천시 서구 도요지로 188
운영 시간 : 매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문의 : 032-564-8425
홈페이지 : recycletown.co.kr
※인천e음카드 가맹점

“중고물품 팔거나 사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해피트리 리사이클 이종인 대표는 본인을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중간 도우미’라고 지칭한다.

“이 곳에서 구입한 제품은 최대 6개월까지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윤대중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이사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주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24
운영 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시간씩 단축 운영)
문의 : 032-888-7282
홈페이지 : koreacycle.or.kr

자원순환을 선도
재활용 전문 매장

민간 제품 외에 정부 물품을 취급하는 중고 전문 매장도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조달청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를 맞아 범국민적 물자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이곳에선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정부 물품과 민간 물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매입한 중고 물품 외에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하자가 생긴 물건이나 가게에서 판매하다 이월된 상품들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구매한 상품을 쓰다 고장 나면 구입 후 최대 6개월까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또 일정 기간 사용한 물품을 다시 매입하는 ‘책임재매입보증제’도 실시하고 있다. “저희는 사물의 가치와 수명을 연장해 자원을 절약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윤대중(52)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이사는 내부 전문 수리 기사를 통해 중고 물품을 수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부합하다는 판단으로 센터가 2012년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위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과 관내 저소득층에게 생활필수품(재활용품)을 무상 지원하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꾸준히 진행 중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샀다며 만족해 할 때, 창업을 준비하면서 찾아온 분들이 이후 잘되어 다시 집기를 구매하러 왔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서는 온비드(onbid.co.kr)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기도 한다. 경찰차는 스티커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일반 승용차로 판매한다.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우리 시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여기서 잠깐, '자원순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Q&A로 알아보는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의 모든 것.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인천이 열어가는 쓰레기 독립, 친환경 미래가 보인다.

인천에코랜드(가칭) 조감도

Q5 인천에코랜드와 수도권 매립지의 차이점

수도권 매립지와는 뼛속부터 다릅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골리앗이라면, 인천에코랜드는 다윗입니다. 덩치부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에코랜드 조성 면적은 14만8,500m²로 약 4만5,000평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크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수도권 매립지의 1/100 수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단순하다면, 인천에코랜드는 스마트합니다. 생활 쓰레기를 그대로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최소한의 소각재와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를 거부합니다. 인천에코랜드의 하루 반입량은 161t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9년 수도권 매립지 하루 반입량 9,230t의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줄지어 들어서던 하루 584대의 20t 트럭이 8대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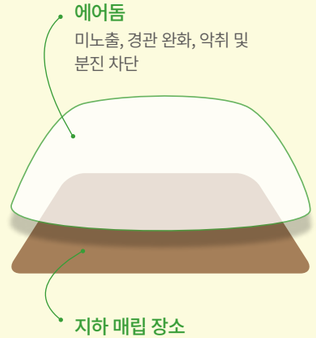
여기에, 운송 차량은 완전 밀폐형으로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송하지 않습니다. 평일 역시 야간 시간에만 운행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매립 방식도 지하 매립으로 설계하고, 지상에는 에어돔을 설치해 지상 노출을 완전히 막아 악취와 분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매립이 끝나면 에어돔을 제거해 해당 부지에 공원과 체육 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해 그동안의 공감과 지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인천에코랜드와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VS	인천에코랜드
1,600만m²	면적	14만8,500m² (수도권 매립지 1/100 규모)
인천, 서울, 경기 (64개 지방자치단체)	반입 지역	인천
생활, 사업장, 건설 폐기물	매립 폐기물	소각재, 불연성 폐기물
직매립	매립 방식	소각 후 매립
337만t(하루 9,230t) 21만3,316대(하루 584대) *2019년 기준	반입량	161t(수도권 매립지의 1.7%) 20t 트럭 8대 분량
노상 매립	매립 형태	지하 매립, 에어돔 형식

인천에코랜드 미리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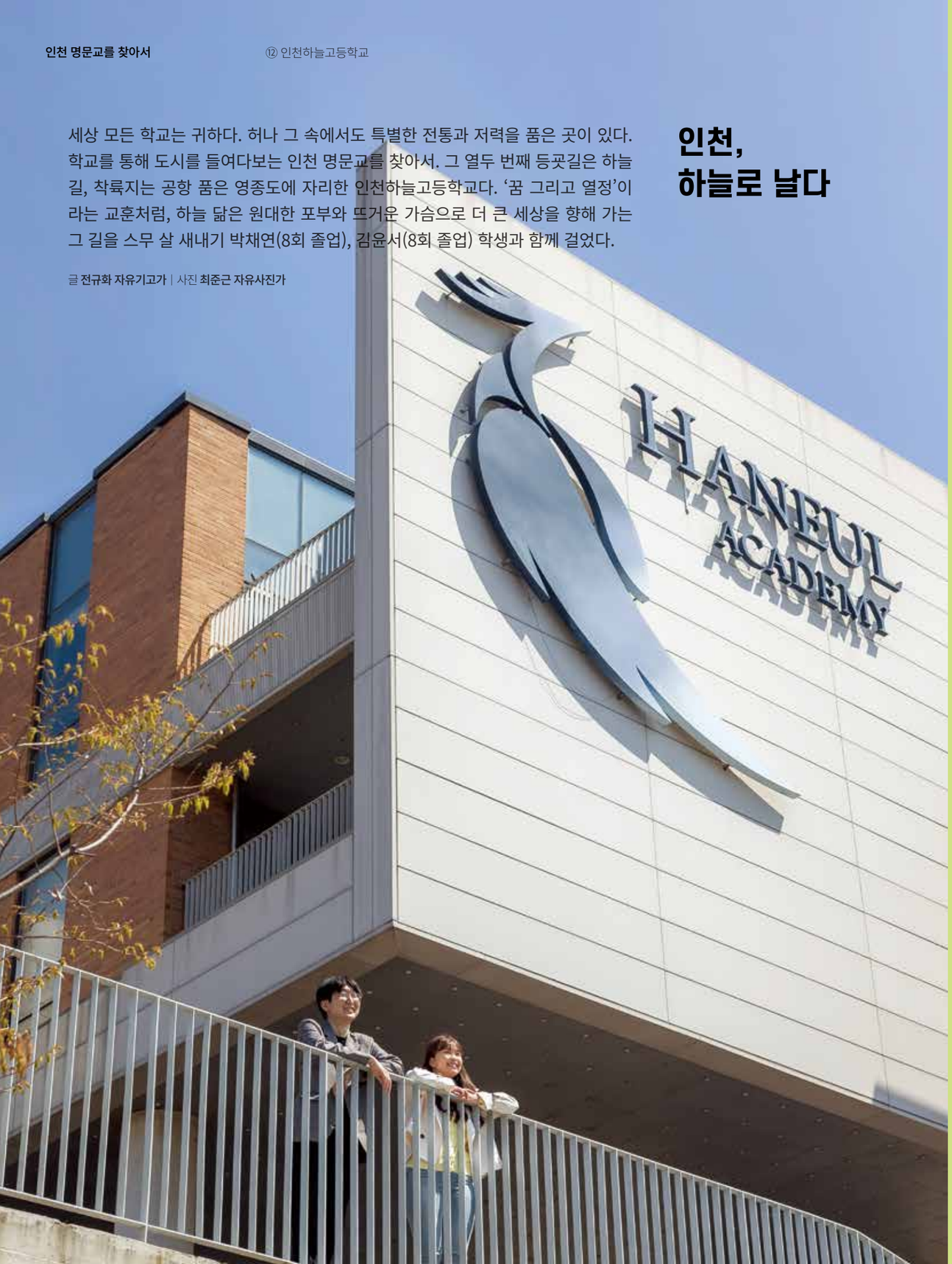


【예습 안내】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자원순환 Q&A'. 6월에는 '인천에코랜드 조성 지역 선정 기준 및 지역 주민 지원 방안'을 살펴봅니다.

인천,
하늘로 날다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허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열두 번째 등굣길은 하늘길, 착륙지는 공항 품은 영종도에 자리한 인천하늘고등학교다. '꿈 그리고 열정'이라는 교훈처럼, 하늘 닮은 원대한 포부와 뜨거운 가슴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스무 살 새내기 박채연(8회 졸업), 김윤서(8회 졸업) 학생과 함께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쾌적한 환경과 탁월한 인프라는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자랑이다.

왼쪽부터 김윤서, 박채연 학생, 김일형 교장

인천에 의한 인천을 위한 인천의 학교

'인천에는 좋은 학교가 없다.' 1년에도 600~700여 명의 학생들이 그들만의 좋은 학교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이대로라면 인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다. 이채욱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절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 벗고 나섰다. 공항을 일터로 둔 이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곧 인재를 잡는 길이었다. 지용택(84) 이사장은 도움 될 만한 곳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인천의 인재는 인천이 키워야 한다고 외쳤다. 인천시와 교육청도 힘을 보탰다. 2011년 3월, 인천하늘고등학교(이하 하늘고)가 개교했다. 인천 최초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탄생이었다.

"이채욱 전 사장께서 2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는 분이셨는지, 1억원이라는 큰돈을 장학금으로 남기셨다고 해요."

그는 떠났지만 늘 학교와 함께한다. 학교는 이채욱 전 사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정 가장 볕 좋은 곳에 사시사철 푸른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장학금은 올해부터 고인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10월 열릴 개교 1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흉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개교 10년, '인천의 인재는 인천이 키운다'라는 목표는 현실이 됐다. 지난해에만 24명의 졸업생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박채연(20), 김윤서(20) 학생도 바늘구멍을 뚫었다. 탁월한 입시 성적이 다는 아니다. 하늘고의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중 절반이 넘는 125명을 영종도에서 뽑고 있다. 범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면 155명으로 늘어난다. 하늘고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에서 영종도로 이사를 오는 진풍경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학교가 영종도를 또 인천을 성장시키고 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절제와 신뢰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마의 3분. 이륙하는 비행기는 3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힘을 쏟아내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륙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정상 궤도에 오르면 웬만한 일로는 추락하는 법이 없다. 대학 입시라는 거사를 앞둔 고교 시절이 이와 다를까. 하늘고는 관제탑이 되어 학교만의 방식과 철학으로 학생들을 보다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한다.

"학생 모두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 달에 딱 한 번, 2박 3일간의 외출이 주어지죠. 흔히 저희 학교를 '3무無' 학교라고 하는데 등하교, 휴대전화, 사교육이 없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기숙사 생활은 그렇다고 치자.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절제는 곧 탁월한 자기 주도 능력으로 이어진다. 입시 결과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닥칠 만만치 않은 세상 속,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하늘고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두세 배 더 노력하고, 학생들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선생님을 따른다. 결과는 지금껏 하늘고가 보여준 놀라운 성과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선생님들이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선생님과 학교를 믿고 열심히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죠."

3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 그렇기에 학교는 집처럼 편안해야 한다. 하늘고가 보유한 인프라가 국내 최고 수준인 이유다. 모든 교실에 설치된 전자 칠판은 학습 능률을 배가시킨다. 넓고 쾌적한 도서관, 실내 정원, 피트니스 센터에 각 교실마다 조성된 발코니까지, 웬만한 대학 캠퍼스가 부럽지 않다.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많은 학교들이 하늘고를 찾기도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실내 정원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전자 칠판.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기자재다.

꿈과 열정으로 비상하는 활주로

하늘고를 명문 반열에 올려놓은 또 하나의 경쟁력은 다채로운 교과 과정이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항공기 일반, 세계 시민 교육, 평화 통일 교육은 전국에서 하늘고가 유일하다. 과학고와 국제고의 주요 과목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학습 과정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찾아가며 구체화된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은 큰 힘이 되죠. 문과와 이과를 모두 접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갈 수 있어 대학 진학에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영화 감상과 비평, 철학과 논리학, 교과 간 융합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자율 활동 등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덕체智德體, 하늘고에서는 공부 외에도 배울 것이 많다. 스포츠와 예술이 결합된 스포아츠SpoArts와 태권도 교육, 운동화를 신은 뇌 프로젝트 등 체력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하늘 아카데미 페스티벌을 통한 인성 교육, 힐링 콘서트로 대변되는 문화 교육에 양봉과 딸기밭, 배추밭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감성을 쏟아 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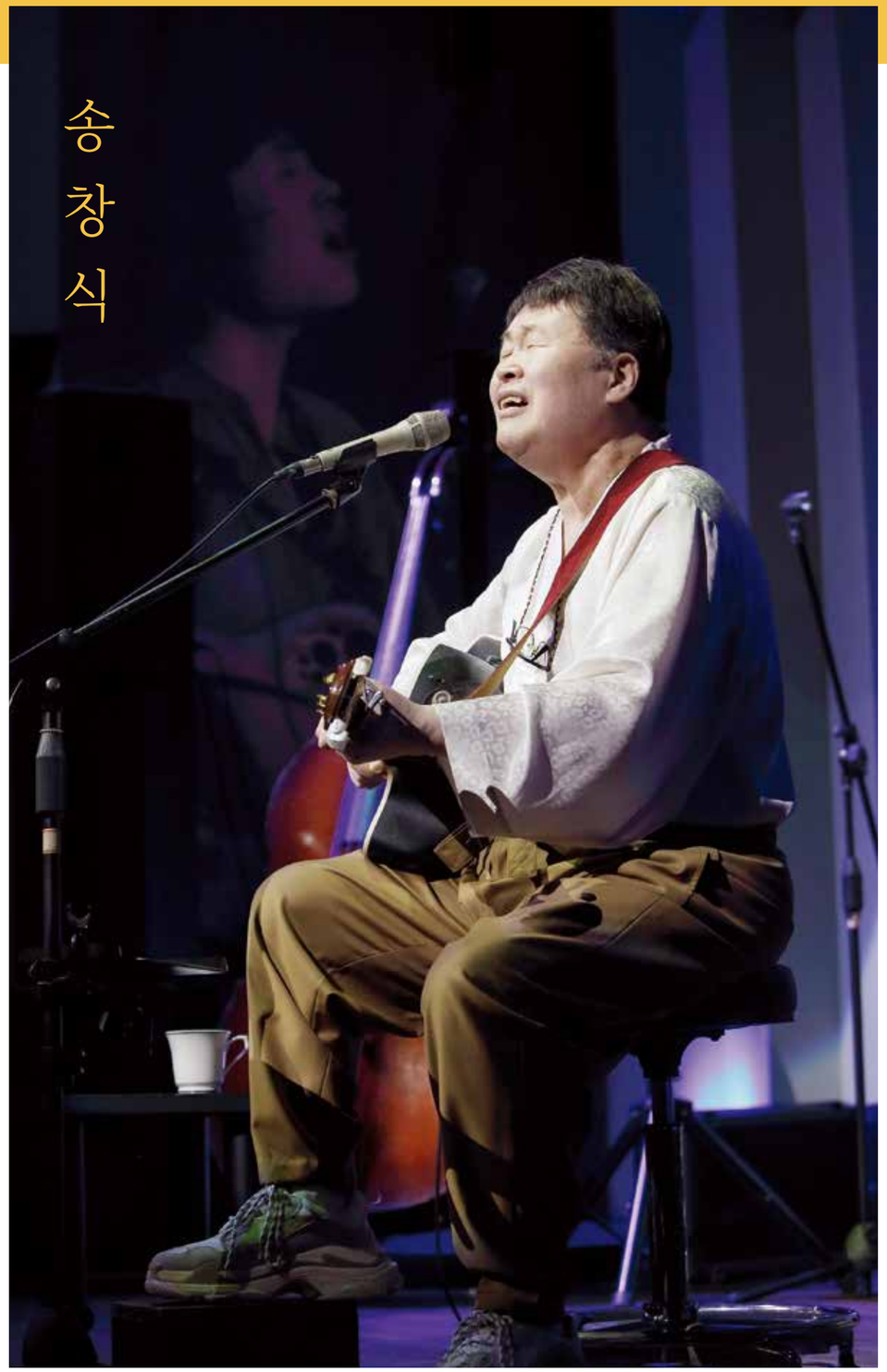
"학교생활이 너무 빡빡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늘고에서의 3년은 선생님들과의 소통이었고, 친구들과의 추억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꿈과 열정만 있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고, 지금의 노력은 분명 훗날 찬란한 미래로 펼쳐질 거라고요."

지용택 인천하늘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주눅 들지 말라. 굵은 사람이 되어라"

"공부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 공부를 못해도, 가난해도 주눅 들지 않게 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그렇게 굵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 인천의 큰어른, 지용택 이사장이 없었다면 하늘고의 탄생도 없었다. "이채욱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99, 내가 1을 했다" 말하지만 그의 노고를 모르는 이 없다. 학교 도서관 한편 서고에 인천 관련 서적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다. 학생들과 인천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용택 이사장이 매년 기부한 책들이다. 인천을 위해 인천이 탄생시킨 인천의 학교이기에, 인천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다.

송창식



인천 출신 가수 송창식은 매주 금·토요일 저녁 미사리 라이브 카페 '쏭아'에서 노래를 부른다. 지난 4월 9일 저녁 송창식이 공연을 하고 있다.

"나의 음악, 나의 사랑, 나의 인천…"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 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송창식(74), 그가 거기에 있었다. 여전히 눈을 지그시 감고, 얼굴 하나 가득 해맑은 미소로 송창식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실내가 쩌렁쩌렁 울렸다. 검은 패널의 통기타를 내려놓고, 양팔을 번쩍 들어 올린 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불러줄 것도 같았다.

'담배 가게 아가씨' '우리는' '토함산'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테이블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한 시간 동안 열 곡 정도를 열창한 그가 무대를 내려온 시각은 밤 9시 40분. 송창식은 미사리의 라이브 카페 '쏭아'에서 매주 금·토요일 저녁에만 공연을 한다고 했다. 노래를 다 부르고 대기실로 들어가는 그를 따라 들어갔다. 아이보리색 저고리와 밤색 바지 한복이 잘 어울렸다. 살이 오른 하얀 얼굴과 통통한 손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제 맑은 소리는 글렀어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죽겠어요. 혹시나 판소리하는 사람처럼 변하면 새로운 음악을 할 수 있을까나."

어쩐지 목이 조금 쉬었다 했다. 1976년 성대 결절 수술을 받은 그는 3년 전 또 한 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 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양쪽 성대에 다 메스를 댔으니 더는 수술을 받을 생각이 없다. 운이 좋다면 새로운 목소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967년 데뷔, 대중 앞에 선 지 54년이 지났건만 그는 여전히 음악에 목마르다. 매일 1시간은 기타, 1시간은 발성 연습을 하는 것은 음악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다.

"머리에 떠오르는 음이 '차~안' 하고 기타에서 나와줘야 하거든. 그런데 몸이 머리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송창식이 밤과 낮을 거꾸로 사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새벽 4시쯤 잠자리에 들고 오후 2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요즘은 치과와 내과에 다니느라 앞뒤로 1시간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한다. "일어나면 1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책 읽고 2시간 운동하고 2시간 (음악) 연습을 해요. 오후 7시에 아침 먹고 새벽 1시쯤 점심 겸 저녁을 먹지요."

화장실에서 책을 읽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운동 방법이 참 독특하다. 팬티 바람으로 2시간 동안 한자리에 서서 뱅뱅 도는 것이 그가 하는 운동이다. "다 돌고 나면 땀이 비 오듯 하고 원심력에 의해 손가락 끝으로 피가 몰리지. 그런데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세상에 없어요."

그가 이 기묘한 운동을 시작한 건 27년 전이다. "1994년 3월 4일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이왕 시작하는 거 1만 일을 채워야겠다 생각했지. 2024년이 1만 일이니까 아직 몇 년 더 남았어요." 송창식은 "2000년 전쯤 무예의 기본운동이 도는 거"였다며 "1만 일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외국도 안 다녔다"고 말했다.

송창식은 중구 답동, 정확히 송도중학교 옆에 붙어 있던 집에서 1947년 태어났다. 땅이 많고 트럭도 몇 대 굴리며 운수업을 하던 부잣집이었다. 한국전쟁은 그러나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아버지가 6·25전쟁 때 전사하셨어요. 어머니는 나와 여동생을 할아버지 집에 맡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가 일곱 살, 동생이 네 살 때였지."

긴담모퉁이, 독갑다리, 해광사, 팔팔로, 배다리 헌책방, 동인천 별 음악감상실…. 송창식의 가슴속엔 지금도 정겨운 고향의 모습들이 살아 숨 쉰다. “할아버지 집이 숭의동 독갑다리에 있었어요. 큰길로 나가면 벌판이었는데 미군 부대와 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어려서부터 하모니카를 불고 노래를 곧잘 하던 창식은 미군들에게 인기 높은 ‘코리안 보이’였다. 창식이 부대 앞을 지나갈 때면 미군들이 불러 세워 연주와 노래를 시키고 초콜릿을 주었다. 그의 집안이 긴담모퉁이 뒷골목으로 이사한 때는 신흥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이다.

“이사한 집을 창신조라 불렀는데 똑같이 생긴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칸막이도 없이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공중화장실에서 한꺼번에 ‘볼일’을 봐야 하는 곳이었지요.” 창신조는 개항 초기 부두의 하역 인력을 총괄하던 조직. 창신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살던 적산가옥의 방 한 칸을 일곱 식구의 거처로 정한 것이다. 몸을 절묘하게 지그재그로 엮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비좁았다. 그런 창식에겐 해방구가 있었으니 ‘음악’이었다.

한글을 깨친 여덟 살 때부터 창식은 음악책을 끼고 산다. 공부도 정말 잘했다. 3학년 이후 반장을 도맡았던 그

송창식이 매주 금·토요일 저녁 공연을 갖는 라이브 카페 ‘쏭아’

는 당시 인천 최고의 명문 인천중학교에 무시험으로 입학한다.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해야 갈 수 있는 학교였지만 1등으로 졸업하며 특례 입학한 것이다. 학교에선 ‘범생이’였지만, 동네에선 ‘껌 좀 씹는’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학교 가면 똘똘한 녀석들도 있었는데 동네 친구들은 시쳇말로 좀 노는 아이들이었거든. 해광사에서 맨날 싸움 얘기나 하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스님에게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났지요.”

중학교 1학년 때 인천여상 강당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동을 받아 지휘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창식은 졸업할 때쯤 서울예고 진학을 선언한다. 난리가 났다. 학교는 창식을 제물포고로 진학시켜 서울대에 보낼 요량이었던 것이다. “인중-제고-서울대 진학이 정코스였거든. 선생님들이 제고 가서 서울대 음대 가면 된다고 했지만, 지휘자가 되려면 서둘러 음악 공부를 해야겠더라고.” 필기시험에서 1등을 하며 창식은 덜컥 합격한다. 그러나 서울예고가 어떤 곳인가. 부유한 집안 자녀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던가. 동가식서가숙에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며 학교를 다니던 창식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말쯤 중퇴를 한다. 그렇다고 지휘자의 꿈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창식은 이때부터 배다리 헌책방을 부지런히 오가며 독학을 한다. 갈라진 논이 단비를 빨아들이듯 클래식과 팝송, 국악과 화성악을 넘나들며 음악 이론서를 모조리 섭렵한 시기다.

스무 살이 되던 1966년, 창식은 종종 홍익대나 서울대 음대로 발걸음을 한다.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한테 밥 한

송창식은 지금도 하루 1시간은 기타, 1시간은 발성 연습을 한다.
송창식이 기타를 치고 있다.

“송창식은 기인奇人이 아닌 귀인貴人이다. 팝에 국악을 접목해 자신만의 독창적 음악 세계를 구축한 천재 가수다. 따뜻한 가슴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인천 사람 송창식은 영원히 고향과 사랑을 노래할 것이다.”

공연을 마친 송창식이 ‘쏭아’ 무대에서 특유의 웃음을 보내고 있다.

끼 얻어먹기 위해서였다. “대학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서울대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캠퍼스 잔디밭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따금 도강도 하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찾아온다. “종로 세시봉이란 음악감상실 사장의 아들이 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대학생의 밤이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노래 불러보지 않겠냐고.”

이때부터 ‘밥 동냥의 지겨움’에서 해방된 송창식은 ‘이론과 실력’이란 양 날개로 훨훨 날아오른다. 1968~1969년 트윈폴리오, 1974년 이후 솔로 활동을 통해 ‘불후의 명곡’들을 탄생시킨 송창식은 한 시대를 풍미한 뒤 1990년대 말부터 침묵에 들어간다. “어느 날 보니 내 음악이 새롭게 등장하는 음악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음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잠깐 숨을 고르기로 한 게 지금까지 왔네요.” 송창식의 음악적 자존심은 대단하다 못해 꼿꼿하다. “저만의 음악이 있는 건 분명해요. 베토벤이 앞에 있어도 무릎 꿇을 생각이 없으니까.”

퇴촌에 사는 송창식은 직접 차를 몰아 고향을 찾곤 한다. 그렇게 연수구에 사는 여동생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친척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는 인천이 음악적 모태이자 어머니 품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제 음악엔 하나도 빠짐없이 인천이 들어가 있어요. 인천에서 나고 자랐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를 가리켜 기인奇人이라 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송창식은 기인이 아닌 귀인貴人이다. 팝에 국악을 접목한 독창적이고 견고한 음악 세계를 창안한 천재이다. 따뜻한 가슴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인천 사람 송창식. 그는 언제까지나 고향을, 그리고 사랑을 노래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다시 시작하는 '생활체육'

국민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 1회 이상, 1회 운동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체육 미참여율'이 2019년 25.9%에서 2020년 29.5%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운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역력 강화로 일상생활의 체육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전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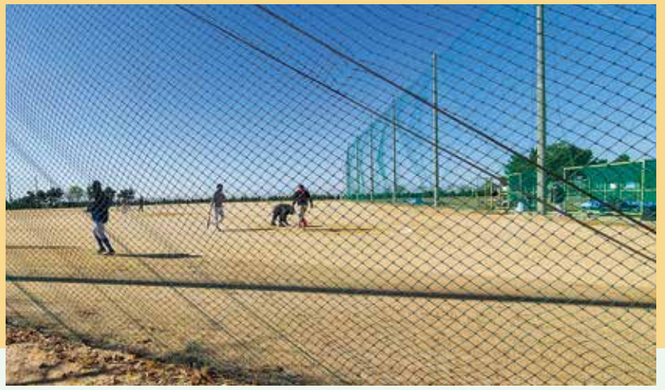
'홈 트레이닝'의 시대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하는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시는 5월 2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홈트레이닝 '상쾌해GYM'을 개설해 생활체육지도사의 전문적인 동영상 강습을 제공하고, 하반기부터는 '우리 동네 운동장'이라는 메뉴를 추가해 인천지역 체육시설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각 군·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ZOOM '라이브 체육교실'을 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종목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 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제공

내 몸의 건강 상태와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이 궁금하다면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해 보자.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체성분 분석 및 체력 측정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 체력 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천동구체력인증센터, 미추홀체력인증센터, 연수체력인증센터가 운영 중이며, 지역 상관없이 인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형 스포츠 친화 기업 발굴·지원

직장 내 스포츠 친화 문화를 확산하고자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 친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 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동호회 활동 및 스포츠용품을 지원하고, 대출 이자 감면과 경영 컨설팅, 기술 지원, 해외 시장 진출 등에 가점을 부여하며, 인천e음카드 스포츠 친화 기업 이벤트를 통해 판로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리그전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생활체육대회도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2021년도 인천시협회장기 야구대회가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LNG야구장에서 무사히 치러졌으며, 4월 2일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는 2021년 인천시테니스협회장배 개인전 테니스대회 여자복식이 개최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방역당국 및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회를 추진하고, 개최 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똑똑하고 쾌적하게 변신하는 인천시 버스정류소

By 유용필

05 Culture Calendar

※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른 안전한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니 문의처에 꼭 확인 후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전시

제30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
5월 6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29회 인천미추홀구미술협회전
5월 6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화랑 Project 그룹 전시회
5월 6일~13일
인천시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김정란 개인전
5월 6일~13일
인천시 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30회 남동구문화예술회전
5월 7일~1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연꽃 속의 보석
5월 7일~1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39회 인천교원사진연구회사진전
5월 7일~1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27회 예흔전
5월 7일~1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021년 인천한마당미술축제전
5월 14일~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전시실

일수회 그룹전
5월 20일~27일
인천시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이윤정 민화 개인전
5월 20일~27일
인천시 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청로 윤병호 현대캘리예술의세계
5월 21일~2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청로조형예술협회 국제교류전
5월 21일~2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6회 남동구사진가연합작품전
5월 21일~2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15회 인천물그림회 정기전
5월 21일~2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이달의 공연

01 토

인천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Movie+ing'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원
Ⓣ 1588-2341

05 수

제22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
2021 인천국제유아교육전 IN Spring
송도컨벤시아 3·4홀
5월 5일~8일
오전 10시
~오후 5시 30분
1만원(사전 등록 무료)
Ⓣ 02-3453-8887

키즈 콘서트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I
아트센터인천
오후 3시
전석 1만5,000원
Ⓣ 032-453-7700

06 목

2021 K-골프박람회 with 송도
송도컨벤시아 1홀
5월 6일~9일
오전 10시~오후 6시
3,000원
(사전 등록 무료)
Ⓣ 032-541-3300

07 금

황·금·토·끼
인천시립교향악단
'우드윈드 마니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2

08 토

황·금·토·끼
클레프아츠 '시네마 사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

12 수

2021 커피콘서트 III
연극 '뷰티풀 라이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13 목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74회 정기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오후 8시
R 3만원, S석 2만원
Ⓣ 032-453-7700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II
아트센터인천
오후 3시
전석 2만원
Ⓣ 032-453-7700

14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4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스테이지149
연극 '뷰티풀 라이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1588-2341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 '우리춤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2

15 토

스테이지149
연극 '뷰티풀 라이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원
Ⓣ 1588-2341

황·금·토·끼
방타타악기앙상블 '세계를 두드리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21 금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1588-2341

황·금·토·끼
인천시립극단 '환타스틱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2

22 토

제28회 새얼 국악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032-885-3611

콘서트 오페라 시리즈 I
피가로의 결혼
아트센터인천
오후 5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032-453-7700

황·금·토·끼
로멘티카 아르떼
'선율 속에 떠나는 영미 문학 산책'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Live Show '무지개 물고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전석 3만원
Ⓣ 1800-9932

23 일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Live Show '무지개 물고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전석 3만원
Ⓣ 1800-9932

25 화

제11회 인천여자중학교
음악중점학교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무료
Ⓣ 032-629-8313

27 목

인천시립합창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오후 7시 30분
R석 2만원,
S석 1만원
Ⓣ 032-420-2784

29 토

황·금·토·끼
2021 은율탈춤공연
'물이 깊으면 월천시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30 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 클래식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초대
Ⓣ 032-888-0808

인천 그리고 영화

인천은 영화의 도시다. 국내 최초의 극장 탄생도 인천이 무대였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진 상반된 도시적 매력 때문일까. 인천을 배경으로, 또 인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한 영화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인천스텔라'라는 독창적인 영화 덕에 더욱 주목받은 인천. 그래서 준비했다. 도시 그리고 영화 이야기.

인천에서 우주로
인천스텔라

'인천스텔라'라, 문득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가 떠오른다. 실제 백승기 감독은 제목을 여기서 대놓고 따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스텔라의 '인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천이 맞다. 하지만 한자를 '사람 인人'과 '하늘 천天'으로 바꿨다. 스텔라Stellar는 '별'을 뜻하는 단어이자, 1980년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자동차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이 영화가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주된 배경은 우주지만, 장면 장면 인천 곳곳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백승기 감독의 종전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으로, 자유공원과 인천항, 홍예문 등이 그의 단골 촬영 장소다. 영화는 인천스텔라를 타고 우주로 떠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가족애를 버무렸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45초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은 이 작품은 인천영상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제작됐다.

감독 백승기
출연 손이용, 강소연, 정광우, 권수진
장르 SF
개봉 2021년 3월

인천에서 역사로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 당시 단번에 전세를 뒤집었던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다. 북한의 기습으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전체를 빼앗기게 된 상황. 국제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펼쳤던 인천상륙작전을 그리고 있다. 개봉과 함께 인천을 배경으로 한 역사 재조명은 물론이고 국내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인천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촬영 당시 제작된 팔미도 등대 모형은 현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실제 팔미도 등대는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을 맞이했던 2020년 9월 15일, 국내 등대로는 처음으로 국가 사적 제557호로 지정되어 의미를 더했다.

감독 이재한　**출연** 이정재, 이범수, 리암 니슨, 진세연
장르 전쟁　**개봉** 2016년 7월

감독 김학순　**출연** 김무열, 진구, 이현우
장르 드라마　**개봉** 2015년 6월

인천에서 바다로
연평해전

인천의 바다는 생명이지만 때로는 아픈 역사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1999년 6월 7일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 국내에서 개최된 월드컵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이때 북한이 또다시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근접 차단을 실시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집중 사격을 가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교전 후 북한이 퇴각했고, 그렇게 짧은 전쟁은 끝이 났다. 6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때 그 가슴 시렸던 상황을 영화로 옮긴 작품이 '연평해전'이다. 참수리 357호 정장이었던 윤영하 대위, 조타장 한상국 하사, 의무병 박동혁 상병 등 당시 교전에서 목숨을 잃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뜨거웠던 전우애와 숨막혔던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인천에서 섬으로
실미도

지난해 다리가 놓이며 시민과 더욱 가까워진 무의도. 그 옆 작은 섬 실미도는 대한민국 최초 1,000만 관객 영화의 무대였다. 영화 '실미도'는 1968년 창설된 '실미도 684부대'에 관한 영화다. 조국의 부름에 목숨을 걸고 응답한 청년 기간병들과 분단 조국이 내몰았던 사지의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울부짖으며 죽어간 훈련병 31명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백동호의 소설 <실미도>를 원작으로, 국내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이면서도 역사에서 지워지고 숨겨진 실미도 사건을 재구성해 큰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등을 수상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에서 모두 탁월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영화는 실제 실미도와 무의도 일대에서 촬영했으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영화 실미도 촬영지'라는 타이틀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감독 강우석　**출연** 설경구, 안성기, 허준호, 정재영
장르 전쟁, 드라마　**개봉** 2003년 12월

회고-II 43x38x30cm 테라코타 1979

사랑과 미움 20x21x15cm 브론즈 2014

세계적 조각품, 인천 품에 안기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제공 **고정수**

고정수 조각가가 작품 40점을 고향 인천에 기증했다. 지난 4월 2일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귀하께서는 인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미술 작품들을 기증함으로써 지역 미술 작품 기증문화 조성에 귀감이 되었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인천광역시청 시장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한 초로의 예술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의 주인공은 조각 작품 40점(시가 16억원 상당)을 기증한 고정수(74) 조각가였다. 그는 예술 작품을 기증하는 1호 기증자로 기록됐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표상이 될 만한 인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흔적을 남겨야 한다”며 덕담을 건넸고, 고 작가는 “제 작품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고정수가 기증한 작품(사진)은 1970년대 시작한 여체에서부터 최근작인 곰에 이르기까지 테라코타, 대리석, 브론즈 등을 재료로 한 것들이다. “우연한 기회에 서상호 인천시 문화예술과장께서 작업실 양평으로 찾아와 기증을 권유하셔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 작가는 “인천은 나의 뿌리이고, 인천이라는 토양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오늘의 내가 형성됐고 존재한다”며 “열매이자 결과물인 나의 분신 작품을 고향에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은 여인 아니면 곰이다. 후덕한 얼굴은 통통하고 몸은 풍만하다. 생명을 잉태하고, 산고의 고통을 인내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인간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여체’가 그의 작품 주제다. 내면이 더 아름답고 강건한, 어쩌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 아들 하나 잘 키우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하시고, 교통사고 치료비조차 등록금으로 내주신. “어렸을 때 집이 몽땅 불에 타 가세가 기울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불편하신 몸으로 차 밑에 들어가 기름때를 닦고, 구멍가게와 식당을 전전하며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를 보며 한국 여성만의 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지요.”

고 작가는 그렇게, 여인상에 몰입한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내면을 끄집어내야 했다. 부드러운 곡선의 풍만한 여인을 조각하기 시작한다. 한없는 모성애를 품은 인내와 포용의 바다처럼 너그러운 여인. 그게 바로 그가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적 여인상이며 그 작품의 본질이기도 하다.

서 있는 사람 167x75x70cm 화강석 1995

세 자매 58x36x35cm 대리석 1992

자매-XI 77x35x35cm 브론즈 1983

자매-11 160x90x60cm 브론즈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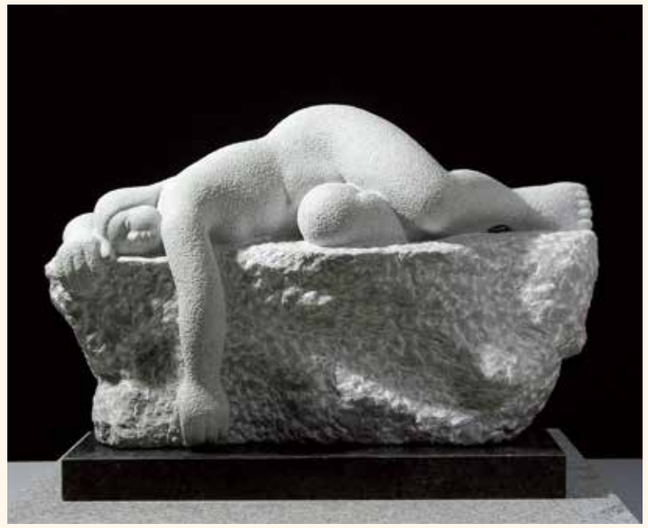


Figure 86-5 39x62x27cm 대리석 1986

그런 그가 작업의 주제를 곰으로 바꾼 때는 2014년이다. 주제의 일관성 속에서 새로움에 도전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곰은 여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단군신화를 보면 곰은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웅녀로 태어나 우리나라 시조인 단군왕검을 출산했지요. 곰 역시 인내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체에서 곰으로 전환하면서 그의 작품엔 해학이 가미된다. 두 곰이 비스듬히 머리를 맞댄 채 미소를 띤 작품 ‘사랑과 미움’처럼, 그의 곰 작품들은 표정이 밝고 동작이 재미있다. 곰 작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지금 경기도 양평의 복합문화공간 ‘카포레’에서 ‘고정수 50년전’을 진행 중이다. 반세기 동안 그가 빚어낸 작품 167점을 볼 수 있는 회고전이다. 김수환 추기경 흉상을 포함해 그의 50년 예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다.

고 작가는 지금 양평에서의 삶을 정리 하려고 한다. 귀향을 위해서다. “인간은 누구나 귀소본능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대학교수가 되기 전까지 고향에서 살았어요. 나이 탓일까요. 바닷물이 넘나드는 갯벌에서 발가벗고 물놀이하던 어린 시절, 자유공원과 청관, 하인천 부둣가에서 그림을 그리던 학생 때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박찬훈(49) 문화관광국장은 “인천이 고향이라는 순수한 이유만으로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선생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시에 기증문화가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수는

중구 신흥동(3가 26번지)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옛 자유극장 건너편 모퉁이에 있던 제일사주유소 옆 자동차 정비공장이 그의 집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재가 발생한 뒤 가세가 크게 기운다.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인천남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다. 가정 형편상 생업을 위해 인천기계공고에 입학했으나 미술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해 3학년 때 인천남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다. 이때 송덕빈 교사로부터 기초 소묘와 조형 감각을 배웠고 홍익대 조각과에 입학한다. 대학 2학년 때 국전에 입선하고, 1979년 문화공보부 장관상, 1981년 대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대학교 교수가 됐으나 보다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41세 때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다. 이후 작품에만 전념해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국회의사당, 한국방송공사, 대한항공, 신라호텔, 호림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홍익대학교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인천일보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작품 ‘솔바람 소리를 들으며’(1992)가 미술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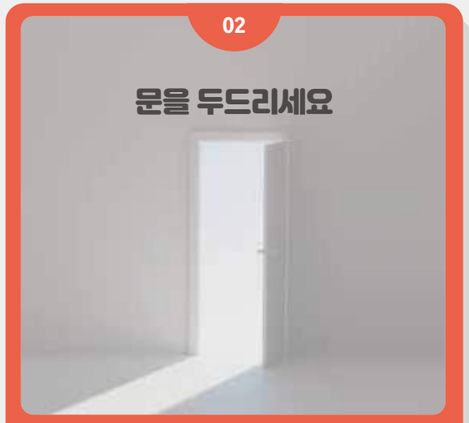
작업실에서 곰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고정수 조각가

◦ IMAGE NEWS ◦

01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02



#건강한 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싶다면
#문을 두드리세요.

03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 강화 #가족 관계 개선
#부부 역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04

#각 군·구별로 진행되는 #다채롭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엄마, 아빠, 아이 모두
#행복한 인천을 함께 만들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중구 032-763-9337, 동구 032-773-0297, 미추홀구 032-875-2993, 연수구 032-851-2730, 남동구 032-467-3904, 부평구 032-508-0121·032-511-1800, 계양구 032-541-2860, 서구 032-569-1560, 강화군 032-932-1005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플러스

+ 우리 시는 정부보다 감축 목표치를 크게 높인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온실가스를 줄일 예정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천 지역상품권 '인천e음카드' 누적 충전금이 총 5조77억원을 기록했다.

+ 우리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시는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3,0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한다.

+ 5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들의 구강건강 챙기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 우리 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우리 시는 지난 4월 26일 전국 최초로 '전기 저상 2층 버스' 2대를 광역급행버스 M6450 노선에 개통했다.

+ 우리 시는 지난 4월 22일 인천을 대표하는 생물 5종(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을 깃대종으로 선정했다.

NEWS BRIEF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좋아졌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 대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환경부의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인천지역 7개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정수장과 배수지의 위생관리 시설의 전면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국비 포함 3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충 시설의 개선과 위생관리 시설의 보강사업을 시행한다. 또 올해 8월까지 수돗물 생산에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위해요소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그동안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했던 소형생물의 분석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 내 맑은물연구소에 유충 분석 장비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032-720-2143

콩기름 활용한 친환경 '비누명함' 탄생

우리 시가 '지구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친환경 명함 'I'M BUBBLE' 이벤트를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인천시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에 '지구야 ○○해' 댓글과 필수 해시태그(#all_ways_Incheon)를 명기해 응모한 사람 중 70명을 선정해 친환경 버블 명함(1인당 50매)과 비접착식 종이 케이스를 선물했다. 친환경 명함 I'M BUBBLE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다.

시는 '인천형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을 앞장서기 위해 자원순환 실무자들의 명함도 비누명함으로 교체, 친환경 업무 정책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시 소통기획담당관 032-440-3082

204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우리 시는 정부보다 감축 목표치를 크게 높인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세워 온실가스를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30.1%까지 줄이고 2040년에는 80.1%까지 감축한다.

2018년 인천 온실가스 총배출량 6,600만여 t(CO2-eq)을 기준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2

저어새 등 5종 인천 대표 생물 '깃대종' 선포

우리 시는 지난 4월 22일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인천을 대표하는 생물 5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했다. 깃대종은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제시한 개념으로,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생태·지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생물 종을 일컫는다.

인천 깃대종으로 선정된 생물은 저어새(조류)·금개구리(양서류)·점박이물범(포유류)·흰발농게(무척추동물)·대청부채(식물) 등 5종이다. 저어새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가 남았는데 이 중 약 80%가 인천 무인도 등지에서 번식한다. 점박이물범도 전 세계 개체 수가 1,500마리에 불과하며 백령도 하늬해변 등지에서 300~400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시 생활환경과 032-440-3433

©사진 김정환

전국 최초 '2층 전기버스'… 송도~서울 삼성역 운행

우리 시는 지난 4월 26일 전국 최초로 '전기 저상 2층 버스' 2대를 광역급행버스 M6450 노선에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한 M6450 노선의 2층 전기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일렉시티 모델로 1층 12석, 2층 59석 등 총 71인승이다. 이 전기버스는 72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하다.

M6450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아 2020년 5월 운행 개시했으며, 송도 8공구 e편한세상아파트 정문에서 출발해 서울 한국무역센터·삼성역까지 운행한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842

청소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우리 시는 청소년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정보 통합 플랫폼을 올해 말에 오픈할 예정이다. 인천시 청소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민들이 제안해 추진하는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인천에 소재한 청소년 시설·단체·센터 등의 각 기관별 홈페이지 접속·방문을 하지 않아도 시설 현황, 개설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청소년은 물론이고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학교 교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플랫폼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 아동청소년과 032-440-2843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 속도제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는 시속 50km이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그러나 외곽의 물류 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 구간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66억원을 들여 6,396개 도로 2,813km 구간을 대상으로 노면 표시와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했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62

미추홀도서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우리 시는 지난달부터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시행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읽고 싶은 도서를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에는 미추홀도서관과 남동구 소재 7개 서점이 시범 운영한다. 미추홀도서관(책이음) 회원증이 있는 인천 시민이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리브로피아)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이용 안내 알림톡을 받은 후 신청자가 회원증을 소지하고 해당 서점을 방문하면 된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매월 1인 2권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일 포함 15일간 이용할 수 있다.

미추홀도서관 032-440-6622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5월부터 실시

우리 시는 5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들의 구강 건강을 챙기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영구치열이 자리 잡는 시기의 아동들에게 구강 검진, 구강 보건교육,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등 예방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강 검진을 원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 예약 후 필요 서류(문진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방문하면 된다.
5월 17일부터 스마트폰 앱 ‘덴티아이’에 회원 가입 후 문진표 등을 미리 입력해 두면 병원 방문 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소재지 관할 보건소, 120

인천 스타트업 파크 ‘도약의 날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 스타트업 파크와 민간 운영사인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육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스마트시티 분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실증 지원, 사업 고도화,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구글이 만든 창업가 공간으로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서울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장시키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476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원

우리 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5982

휴일에도 농기계 빌려드려요

우리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번기인 오는 6월까지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운영한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주소와 경작지가 있어야 한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용 3일 전에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농기계 임대 시스템에 예약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032-440-6931

‘인천e음’ 누적 발행액 5조원 돌파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천 지역상품권 ‘인천e음카드’ 누적 충전금이 총 5조7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욱 빠르다. 올해 1분기 기준 충전 금액은 1조63억원으로 지난해(5,705억원) 대비 무려 176% 증가했다.
인천e음은 월 50만원 사용 시 캐시백 10%(5만원)를 돌려주고, 월 50만원 이상 소비 시 캐시백 1%를 지급한다. 시는 10% 캐시백 지급을 올해 12월까지 유지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충전금과 캐시백으로 기부가 가능한 ‘나눔e음’ 서비스를 개시했다. 2,500여 명이 참여해 1,800만여 원을 기부했으며, 60% 이상 캐시백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효드림 복지카드, 3만3,000명 노인에 제공

우리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시는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3,0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선불 충전식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연 1회 8만원이다. 지원금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여가·위생관리·전통문화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는 인천e음카드와의 연계로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 다음 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13

남동 소래·논현 해안로에 여가 공간 조성

우리 시는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남측 해안로에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사업 부지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영업소 남측 해안 1.1km 구간으로, 시는 36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보행로, 해안전망대 등 시설을 조성한다. 이 부지는 원래 철책과 초소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아암로~용현갯골유수지 구간이 연결되는 연안 친수 지역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해양친수과 032-458-7157

지능형 합승택시 아이모아(I-MOA) 택시 운영

우리 시가 지난달부터 영종국제도시에서 인공지능이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지능형 합승택시 서비스 ‘아이모아(I-MOA)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아이모아(I-MOA) 택시’는 승객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인공지능으로 비슷한 경로를 가는 다른 승객을 찾아 함께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는 지능형 합승택시다. 승객들은 합승하는 대신 택시요금의 30%를 할인받는다. 다만 합승은 동성 승객만 허용되며 택시 앞뒤 좌석에 나눠 탑승해야 한다.
이용 희망자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I-MOA’ 또는 ‘아이모아’를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안내에 따라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시 스마트도시담당관 032-440-8922

◦ COUNCIL NEWS ◦

인천시의회, 정책 소통의 장場 마련

인천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본관 중앙홀과 별관 세미나실에서 '2021 정책 소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정책 소통 페스티벌은 올해로 세 번째다.

8대 의회가 출범한 뒤로 시의회는 해마다 '연구하는 의회, 정책 톡톡(talk talk)'을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연구 성과 발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시의회에선 의원연구단체 20개가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토론회와 시정연구네트워크에 참여한 9개 기관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토론회별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됐다.

5월 11일부터 제270회 임시회 개최

인천시의회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 처리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며,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시의회가 지난 3월 30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을 비롯해 세무사 5명, 재무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난해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 등 총 19조5,152억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검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K뉴딜 및 인천형 뉴딜 관련 연계발전 등 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랜선으로 즐기는 <인천愛의회>

의회 소식지 <인천愛의회>를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개그맨 정현수와 함께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을 소개하는
'인천 프로구단을 찾아서'! 첫 번째 순서로 '인천유나이티드'를 준비했습니다.
인천의 소소한 매력을 소개하는 '전지적 인천시점'까지~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5월에 방영되는 '인천 프로구단을 찾아서-SSG 랜더스' 편도 기대해 주세요.

인천시의회 유튜브
www.youtube.com/c/인천광역시의회

#1. 인천 프로구단을 찾아서

인천은 구도球都다.
해불양수 '인천'이기에 모나지 않은 공처럼
세상 모두를 품고 둥그렇게 화합한다.
한반도에 처음 축구를 알린 인천이기에
시민 모두에게는 축구 사랑 유전자가 온몸 가득하다.
그 열정의 결정체 '인천유나이티드'.
그들을 비추는 숨은 조력자를 만나본다.

- 의회 소식지 <인천愛의회> 131호
'인천 프로구단을 찾아서' 중에서

#2. 전지적 인천시점

언젠가 북적이던 때가 있었다. 골목골목 사람 소리 가득하고 오고가는 온기가 가득했던 때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공간을 채우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인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창업의 꿈이 가득한 이들에게 터전을 내어주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던 곳은 다시 활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 의회 소식지 <인천愛의회> 131호
'전지적 인천시점' 중에서

의회 활동부터 다양한 인천 소식까지~
의회 소식지 <인천愛의회>를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5 **웹진으로 보기** www.icouncil.go.kr/journal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쉼표를 찍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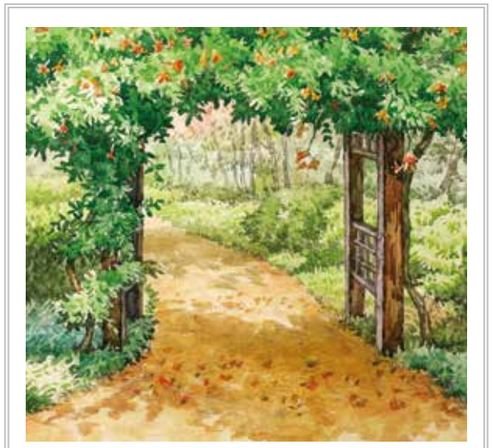
이달의 드로잉

자연과 역사로 이어지는 문, 월미산

'인천 하면 월미도'라는 말이 있듯, 월미도는 인천 사람뿐만 아니라 인천을 찾은 방문객에게도 친근한 장소다. 그중에서도 야트막한 높이의 월미산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다. 아름다운 서쪽 바다를 배경 삼아 여유롭게 돌아가는 대관람차는 가족, 연인, 친구 할 것 없이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곗바늘을 과거로 돌리면 역사의 한 장면과도 마주한다. 월미산은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점이었던 곳으로, 군부대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 이후 2001년 군부대가 철수하며 시민 품에 안겼다.

원유성 작가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인천을 무대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수의 일러스트전과 초대전, 교류전에 참여하며 작품 세계의 폭을 넓혔다. 창작 동화와 전래 동화, 명작 동화 등 다양한 동화 작업을 통해 특유의 친근한 화풍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미추홀구청 벽화 도색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원유성 작가의 채색 가이드

▷4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가은 연수구 해돋이로

엄지영 부평구 원길로

심유하 옹진군 백령면

신채윤 미추홀구 문화로

엄현경 서구 청라라임로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기간 : 2021년 5월 20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INFO BOX ◦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그 시절, 동인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동인천과 관련된 추억과 역사를 이야기해 줄 시민을 찾습니다.

모집 내용 : 동인천과 관련된 사진·영상·기록물이나 이야기를 들려주실 동인천 토박이
모집 기간 : 12월까지
접수 방법
-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동구 화도진로21번길 대제당한의원 2층)
- Ⓔ dongincheon_2030@naver.com
- 인스타그램 DM(@re_dong1ncheon)

참여 혜택 : 소정의 상품 지급
문의 :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032-777-2030

02 뮤지컬로 배우는 어린이 안전

우리 시가 어린이들의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만나는 어린이 안전 교육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공연명 : 신호등 친구들 대모험
공연 기간 : 7월 23일까지
관람 방법 : 인천시 공식 유튜브에서 무료 관람
※ 관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 naver.me/5xlgbC6
문의 : 시 안전정책과 Ⓣ 032-440-1894

03 한시 생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긴급복지(생계 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생계비(1회) 지원
지원 금액 : 1가구 50만원 1회
신청 기간
- 온라인 : 5월 10일~28일 오후 10시까지
- 방문 : 5월 17일~6월 4일 오후 6시까지
- 집중 신청 기간 : 5월 17일~28일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4 남동의 땅 이름과 문화유산 배워보아요

남동구에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동의 땅 이름과 문화유산에 얽힌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집 대상 : 남동구 주민
교육 장소 : 아미고엠센터
교육 기간 : 5월 6일~6월 24일 매주 목요일
수강료 : 무료
문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 032-453-6056

05 환경특별시민을 찾습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에서 환경특별시민을 찾습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대상 : 환경 관련 전 분야에서 환경 보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인천 시민 누구나
신청 방법 : Ⓗ www.iagenda21.or.kr 접속 후 신청서 또는 추천서 작성 후 Ⓔ iagenda@hanmail.net 송부
문의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032-433-2122

06 '스마트한 장사' 도와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을 육성, 지원하고자 '2021년 스마트 시범 상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 :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신청 기간 :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 제출 (원본 우편 송부)
신청 절차 :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규모 : 스마트 시범 상가 100곳, 디지털 사이니지 15곳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1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31

07 우리들의 '워라밸'은 지켜져야 하기에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인천시 소재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 직장 교육 사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운영 방법 : 근로자 10명 이상 2시간 교육
교육 내용 : 총 6개 유형의 과정 중 1개 선택 가능
교육 혜택 : 가족 친화 인증 지표 가점 부여
신청 방법 : Ⓔ ssussu0925@ifwf.or.kr
참조 : Ⓗ www.ifwf.or.kr
문의 : 인천여성가족재단 Ⓣ 032-517-1929

08 재무 코칭 무료로 받으세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재무 상태 진단과 합리적 소비 및 저축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대면 상담을 지원합니다.

대상 : 인천 시민, 인천 소재 소상공인 및 근로자
상담 내용 : 부채 상환, 지출 관리, 저축 계획, 보험 등 재무 상담 및 재무 설계
상담 횟수 : 최대 3회까지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 032-715-5972 또는 QR 코드
문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032-715-5972

09 줄여쓰! 학교대항전

우리 시는 자원순환 실천으로 최강의 그라밸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라밸 : Green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환경과 삶의 균형을 바로잡는 인천시의 자원순화 캠페인 명칭

내용 : 자원순환 실천인증(문구류 분리배출 잘하기, 사발면 다회용 젓가락 사용하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잘하기 등)을 하고 실천인증이 가장 많은 학급, 학생을 선정해 경품 제공
참여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참여기간 : 고등학교는 5월 7일까지(초·중학교 8월부터 시작)
문의 : 시 자원순환과 Ⓣ 032-440-3577,
Ⓗ www.greenincheon.com, Ⓗ www.그라밸인천.com

10 동영상 홈 트레이닝으로 건강 지켜요

인천서부여성회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영상 목록 : 홈 트레이닝(면역력 증강 서킷 트레이닝 1~4편), 수영(이것만 고쳐도 박태환 1~4편)
업로드 일정 : 홈 트레이닝(업로드 완료),
수영(5월 중 2편, 6월 중 2편)
시청 방법 : 인천시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문의 : 인천서부여성회관 Ⓣ 032-458-7374

11 일하고 싶은 아름다운 그 길

우리 시가 중소기업 및 산업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화된 산업시설 탐방 프로그램 '인스로드'를 운영합니다.

대상 : 중소기업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 시민(중학생 이상)
일정 : 11월까지 매월 1~4회
운영 요금 : 무료
탐방 영상 :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 기업 및 환경 개선 사업 연계를 통해 발굴된 코스 탐방 영상 시청
소요 시간 : 약 1시간(영상 시청, 화상 질의응답, 설문조사 및 이벤트)
신청 방법 : Ⓗ hrd.idsc.kr/insroad/edu.php
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환경디자인센터 Ⓣ 032-260-0223

12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돼보세요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컨설턴트 신규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집 기간 : 5월 11일까지
모집 대상 : 인천시 거주자 및 컨설턴트 희망자
모집 인원 : 군·구별 4명 이내
참조 : Ⓗ www.iagenda21.or.kr
교육 방법 : 온라인 기본 교육 수강
문의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032-431-2122

13 치매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세요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 공공 후견인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 : 5월 12일까지
모집 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지원 방법 : 우편 및 이메일
활동 내용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수행,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및 긴급 연락망 형성, 정기보고서 제출
활동 지원 : 활동비 지급
참조 : Ⓗ incheon.nid.or.kr
문의 :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032-472-2028

새 책 소개

술술삼국지

저자 : 허우범
펴낸 곳 : 책문
각권 480쪽, 2만3,000원

역사 소설 <삼국연의> 120회 내용을 압축한 책이다. 주요 장면마다 소설의 모본인 <삼국지평화三國志平話>와 나관중, 모종강 <삼국연의>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소설 내용과 인물 묘사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예슝 작가의 삽화와 함께 구성한 책이다. 저자는 중앙일보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차이나랩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삼국연의>를 읽어나갔다. 매주 1회씩 소설의 내용을 압축하고 나관중과 모종강 소설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길 2년 6개월, 독자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응원을 받으며 120회분의 <삼국연의> 읽기를 마쳤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재 당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새롭게 추가해 구성했다. 또 한 권의 내용을 한 파트로 요약하고 파트 마지막에 '책씻이'와 '소설 밖 나들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과 현장을 함께 살펴보는 재미를 더했다.

단독주택에 진심입니다

저자 : 봉봉
펴낸 곳 : 북스토리
208쪽, 1만3,800원

'전셋값으로 단독주택을 사면 되지 않을까?' 아파트 전세를 살았던 저자 봉봉은 층간 소음과 오르는 전셋값에 시달리다가 오랜 로망이었던 단독주택을 구입한다. 북스토리에서 출간한 <단독주택에 진심입니다>는 저자가 단독주택을 구입해 층간 소음에서 홀가분하게 탈출한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그린 에세이다.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영화 '기생충'에 나올 법한 으리으리한 주택은 아니다. 저자는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찾는다. 저자가 찾아낸 최선의 해답은 인천 구도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는 것. <단독주택에 진심입니다>는 저자가 구도심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투자 대상이 아닌,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조명한다.

115년 전 조선인 피땀으로 건설한 중구와 동구의 소통길

2021년 4월 중순, 봄비가 내린 뒤 중구 방향에서 바라본 홍예문 전경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이쪽에서 가던 차가 입구에서 잠시 멈추자 저쪽에서 차가 넘어온다. 반대편 차선의 차가 완전히 지나가자 멈춰 있던 차가 비로소 출발한다. 차끼리 기다려주기도 하고 사람과 차가 서로 양보를 하기도 한다. '홍예문'(인천시 중구 송학동2가 20)은 그렇게 서로에게 길을 내어주며 115년 세월을 지나왔다.
신포동과 동인천, 중구와 동구를 잇는 홍예문의 홍예虹霓는 '무지개' 혹은 '아치'란 뜻을 지닌다. 폭 4.5m, 높이 13m의 홍예문은 작은 터널이라고 할 수 있다. 터널을 뚫기 시작한 시기는 1906년이다. 러일전쟁(1904)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수는 6,000명 정도였다. 그런데 2년 만에 두 배가 넘는 1만3,000여 명의 일본인이 모여든다. 일본은 자국민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을 확장할 궁리를 짠다. 신포동 방면에서 동구 만석동이나 동인천역으로 넘어갈 때 화평동이나 내동 쪽으로 빙 둘러서 가지 않고, 직접 넘어가는 길이 필요하기도 했다. 방법은 중구와 동구의 경계에 있는 응봉산을 뚫는 것이었다.
1906년 뚫기 시작한 홍예문 건설은 1908년 완공한다. 문제는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 조선인 노무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발파기도 없이 조선인들은 곡괭이 같은 원시적 도구로 거대한 암벽을 부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조선인 노무자들이 죽거나 다쳤다.
암벽이 사라진 자리에 쌓기 좋게 다듬은 화강암이 들어갔고 천장은 빨간 벽돌로 마감했다. 일본인들은 홍예문을 구멍이라는 뜻의 아나문(穴門)으로 불렀으나, 조선인들에겐 피로 뚫은 혈문血門일 수밖에 없었다. 홍예문은 비슷한 시기 준공한 신흥동 긴담모퉁이길과 함께 일제가 자랑하는 대역사였다.
홍예문이 완공된 이후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이 일어났다. 우선 홍예문 위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전한다. 고일 선생의 저서 <인천 석금>은 홍예문 위에서 지키고 있다가 일본 순사들이 지나가면 오줌을 누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쳤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본 여자가 노상 방뇨를 하다 조선인의 발길질에 엉덩이를 걷어채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홍예문을 건설하면서 겪은 조선인들의 극심한 피해 의식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다. 산업화를 지나던 어려운 시기 홍예문 위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때 홍예문을 이루는 벽면을 따라 넝쿨이 뒤덮였으나 보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은 석축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다. 홍예문은 지금도 여전히 중구와 동구를 잇는 소통의 상징으로 길을 내어주고 있다.

인천 지명

우물이 많던 동네 **‘열우물’**

흔히 부평구 십정동을 ‘열우물’이라고 한다.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 번째, ‘십정+#’을 열 개의 우물 또는 열 개가 넘는 우물로 해석하는 경우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설로, 마을에 열 개의 우물이 있어 십정이라 불렸다는 것이다. 다만, 우물이 정확히 열 개라기보다는 열 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상십정리라 불리는 윗열우물마을에만 해도 수십여 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매몰되거나 도로가 나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열熱’이 많이 나는 우물이 있어서라는 설인데, 이를 한자로 옮길 때 잘못 표기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현재 상정초등학교 인근에 온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큰 대동우물이 있어 물 양이 많고, 아무리 추워도 물이 따뜻해 열이 많이 나는 우물이 있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마지막은 우물과 관계없이 이 동네의 산맥이 ‘십+자’로 교차한 모습을 하고 있어 십정+丁이라 했는데, 나중에 십정+#으로 변했다는 설이다. 북쪽 계양산 남쪽 줄기인 원적산과 동쪽 소래산 산맥이 주안산에 이르러 이 마을에서 교차하는 형세여서 대정大丁도 생기고 십정+丁도 생겼다는 설이다.

제각각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기에 열우물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우물이라 불리는 십정동은 ‘열 개의 우물이 있는 마을’을 의미하는 ‘열우물’로 불리고 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하며 사용하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고착화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인천 소사

1982.05.22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 기공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은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국과 미국의 상호 신뢰와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전진을 위해 옛 존스턴 별장 자리에 건립됐다. 1882년 있었던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이 되는 1982년에 세워져 그 의미를 더했다.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은 응봉산 꼭대기 가장 높이 자리하고 있다. 거대한 삼각형 여러 개가 각기 다른 위치에서 한 지점을 바라보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돛을 형상화해 인간과 자연, 평화, 자유를 상징하는 8개의 탑으로 구성된 것이라 알려져 있다.

그때, 5월의 인천은…

1936. 05. 16	수인선 기공
1952. 05. 05	제1회 인천시의회 개회
1974. 05. 10	인천항 제2도크 준공, 인천시민회관 준공
1975. 05. 09	인천실내체육관 준공
1982. 05. 18	부평도서관 개관
1982. 05. 20	인천노인복지회관 준공
1986. 05. 31	새얼문화재단, 제1회 새얼백일장 개최(송도 유원지)
2010. 05. 02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다섯 배의 행복

사연 **최남규(서구 신현동)**

아이가 생겼습니다. 열한 살 둘째와 딱 열 살 차이, 막둥이 녀석입니다. 저와 아내 모두 일을 하며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10월이면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복잡미묘한 기분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 감정은 기쁨이었고, 감동이었으며, 기대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세 배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힘에 부칠 때도 있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또 넷이 됐을 때의 감격을 알기에, 다섯 배의 행복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보내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5

5·3항쟁 35주년, 인천의 봄

지금은 시민공원이 된 옛 인천시민회관 광장은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율화'를 이끌어낸 '6월 항쟁'의 불씨 '5·3항쟁'(1986년 5월 3일)이 전개된 역사의 현장이다. 시민회관 광장 5·3항쟁 기념석 뒤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독재 타도!" 35년 전인 1986년 5월 3일 주안.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은 물론이고 사거리 도로까지 점거한 군중들의 함성이 인천 하늘에 메아리쳤다. 재야운동가, 노동자, 학생들로 이뤄진 5만여 명의 인파 속에서 '군사 독재 타도, 민중 생존권 확보, 미일 외세 축출' 구호가 터져 나왔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킨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개헌추진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갖기로 한 날이었다. 그런데 행사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민주항쟁 들불로 타올랐다. 5·3항쟁은 이듬해 6월항쟁에 불을 댕겨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율화'를 이끌어낸다. 이날 행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개항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이 출발이었다. 일제의 쌀 공출에 따른 정미업으로 시작된 인천의 산업화는 점차 제염, 양조, 경공업으로 확장된다. 1912년 비누 공장 애경사, 1917년 성냥 공장 조선인촌주식회사, 1925년엔 열차를 제작하는 인천공작창 같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문을 열었다. 때맞춰 조선노동공제회 인천지회(1920)와 인천소성노동회(1923)가 결성되면서 노동운동은 조직화하기 시작한다. 1930년대엔 조선총독부의 대륙 병참 기지화 정책에 따른 육군조병창까지 들어서며 인천의 노동운동은 점차 활성화돼 간다.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어진다. 전후 인천항은 재건에 필요한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주요 통로였다. 부평엔 미 군수지원사령부인 애스컴ASCOM이 들어섰고 제분·제당·면방직 등 삼백三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활기를 띠었다. 여기에 1960년대 중반 부평공단을 필두로 주안공단, 남동공단이 조성되며 인천은 거대한 공업 도시로 성장한다. 노동자들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열악한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옥죄는 군사정부의 탄압은 더욱 혹독한 것이었다. 노동쟁의가 빈번해지고 '동일방직 똥물 사건'과 같은 심각한 노동 탄압과 인권 침해가 만연한다.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뜻있는 사람들과 의식 있는 학생들이 젊음을 바쳤다.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가리지 않고 며칠 밤낮을 거꾸로 매달려 악랄한 고문을 받은 끝에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고 나서야 풀려나는 시대였다.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과 활동가들이 신분을 숨긴 채 인천지역 노동 현장 곳곳에 들어가 '노동·민주화운동의 성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벽돌 한 장씩을 쌓아올렸다.

인천 5·3항쟁은 그렇게 우리나라 노동·민주화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로 흐르며 민주화를 크게 앞당긴 사건이다. 군사독재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최초의 불씨로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5·3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정한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인천의 봄'을 기다린다.

봄이 찾아든 교동도에
두 개의 바다가 출렁거립니다.

샛노란 유채꽃의 바다와
푸르게 넘실대는 염하의 바다입니다.

유채꽃의 바다에서 엄마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사진을 찍습니다.
"예쁘게 찍어줘야 해~ 치~즈~"

'예쁜 척 하기는 안 그래도 예뻐'라 쓴
하트 구조물 위 문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는 한껏 예쁜 척을 합니다.

봄의 유채꽃밭에선 엄마도 아이도 유채꽃이 됩니다.

-2020년 5월 교동도 유채꽃밭-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